

## ‘한국 장애인 10년’을 준비할 때



趙 一 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UN에서는 1981년을 ‘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3~1992년의 기간을 ‘UN 장애인 10년’으로 결의하여 1983년에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WPA)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UN의 노력이 1990년 미국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법 제정의 결실을 맺게 하였으며, UN 산하 각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나라 역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구 『심신장애자 복지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UN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관련 법률 제정과 전담 부서 설치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주었으나 장애예방과 재활, 그리고 기회 의 평등이라는 행동계획의 목표달성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UN 장애인 10년’이 끝나는 시점인 1992년 ESCAP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으로 정하고,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Agenda for Action for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여 각국에 장기적 장애정책과 국가적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2002년이면 ‘아·태지역 장애인 10년’도 종료되게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발전도 국제 조류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온

것을 감안한다면, '아·태지역 장애인 10년'이 종료되는 2002년쯤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적 아젠다(agenda)보다는 20여 년 동안 국제조류와 함께 형성된 장애인복지를 토대로 각국 상황에 맞는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장애인복지를 성숙시킬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한다. 더욱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국제사회의 아젠다가 종료되는 지금이 어찌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장애인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법·제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이나 접근권, 생존권 등이 장애인기본권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서비스 체제 미비 등으로 체감되는 장애인복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여 년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재가장애인들의 인권,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간에서 '한국 장애인의 10년'을 계획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

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전체 장애인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법·제도분과, 재할분과, 복지분과, 인권분과 등의 장애인관련 전문분과들의 아젠다 개발은 물론 중장기정책과제를 준비하여 오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 장애인 10년'으로 선포,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의 계획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하기에 당위성과 추진력은 이미 담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철학과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그 내용성에 있어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지면을 통해 사회복지 학계와 전

'한국 장애인 10년'의 민간 계획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하기에 당위성과 추진력은 이미 담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사회복지 학계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함께 그 내용을 채워 나가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가들이 '한국 장애인 10년'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함께 그 내용을 채워 나가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 역시 다양화되고 있으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욕구가 바로 '한국 장애인 10년'을 준비하는 당위성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철학과 발전방향, 그리고 발전과제에 있어 보다 많은 학자들의 논의와 검증이 바로 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3박자가 맞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한국 장애인 10년'이 종료된 후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한 발 앞당기게 될 것이다. 